

# 송년회 딜레마... “코로나우려 취소” vs “자영업 생계는?”

100명 안팎 확진...연말 모임 등 재고 모습  
 “송년회 두려워...선물 보내고 전화 안부”  
 거리두기 강화 목소리...“연말까지 높이자”  
 반대 입장...“마스크 일상화, 조심하면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연말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크리스마스 행사, 연말 모임 등을 예정하던 일부 시민들은 최근 양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9일 시민 사이에는 연말 모임 등 다가올 집합 행사를 재고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세자릿수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 양상을 불안해 하는 모양새다. 경기 성남 거주 직장인 김모(36)씨는 “연말에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는 것

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확진자가 100명 수준으로 계속 나오면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연말 모임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에도 되도록 외출하지 않을 생각”, “매년 송년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 “음식점 송년 모임 대신 선물을 보내고 전화로 안부 정도나 물으려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모임 등으로 인한 전염을 우려하면서 연말까지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모(32·여)씨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확실히 회식이나 모임이 늘었다. 송년회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며 “연말 모임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모임에서 확진이 나오는 상황인데, 연말 행사 같은 것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연말까지라도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등의 견해가 있었다. 반면 경제적 사유와 거리두기 피로감 등에 초점을 맞추는 쪽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모(35)씨는 “거의 1년 내내 코로나19 얘기인데, 요즘은 마스크 착용도 일상화 됐고 확진도 특정 집단 위주로 나온다”며 “할 일은 해가면서 지내야 하지 않나. 연말 모임도 조심하더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회식할

사람들은 다 한다는 것을 이젠 누구나 안다”, “자영업자들 생계도 생각해 봐야 한다”, “확진 100명 정도는 일상 같아져서 굳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시선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으로 이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2만6271명이다. 최근 2주간 확진자 수는 47명, 73명, 91명, 76명, 58명, 89명, 121명, 155명, 77명, 61명, 119명, 88명, 103명, 125명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90명 넘는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사우나, 경기 용인 골프장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병원·보건소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완화 인식을 경계하면서 전염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가깝게는 헬러윈 관련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클럽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헬러윈 전후 집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유흥 시설 점검에 나선 상태다. 경찰도 다음달 1일까지 지자체 점검 등에 협조해 방역 관련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취소하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원들이 29일 오후 제주 시 노형로터리 주계주일본국총영사관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 스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광주 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법규·지침 위반”

광주 모 초등학교가 특고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 광주시 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

가 광주 모 초등학교를 방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는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에도 누락했다. 또 일반 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

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정보공시 지침,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 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 것이다. 신봉우기자

## ‘휠 파손 뒤 교체 유도’ 타이어 전문점 상습 범행 진술

점주 “과거 몇 차례 했다”

경찰이 고객 차량 휠을 파손한 뒤 부품 교체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타이어 전문점 점주로부터 상습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의로 고객 차량 휠을 파손하고 부품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모 타이어 전문업체 점주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과거에도 몇 차례(휠을 고의 파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경찰 압수 수색 직후 “이전에도 휠을 고의 파손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업습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상습 범행을 시인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 고객의 고소장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업주 A씨를 사기 미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일 타이어 교체를 맡긴 고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휠을 고의로 파손, 부품 교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압수 수색을 통해 사



경찰이 27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전문업체 지점에서 고의로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하고 부품 교체를 권유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매출 전표 자료, 매장 내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압수했다. 휠 파손에 쓰인 공구 등도 촬영, 증거로 확보했다.

A씨 행각은 피해 고객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휠 교체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피해 고객은 커뮤니티에 “해당 가맹점에 타이어 교체를 맡겼고, 휠 부품 교체를 권유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맹점 측이 휠을 고의로 파손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계시글과 함께 첨부된 영상 속에는 직원이 공구를 이용해 휠을 망가뜨리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 30여 명이 경찰에 추가로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지점이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 직영이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